

# “국제적 선박 수리 조선소로”

### 군산 설계민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중단된 군산조선소 대안 제시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열린 7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설계민 의원이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설 의원은 “군산조선소가 중단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곳 조선소를 국제적 대형 선박 수리 전문 조선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현재 3만급 이상의 친환경 경 선박 개조 시장 대부분을 수리 조선시설을 갖춘 중국과 싱가포르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도 수리시 98%가 이곳에서 진행해 비용만 연간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급 도크 1기와 1650급 크레인 보유하고 있어, 수리 조선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현대중이 결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은 9월부터 두 달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금강미래 체험꾸러미’ 운영

### 군산금강미래체험관, 유·초등 체험프로그램 온라인 방식 진행

군산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은 9월부터 두 달간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유·초등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CD를 활용한 북극곰 시계만들기 수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비대면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26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약 1,500명이 체험에 참여했으며 이번에는 참여자를 대폭 늘려 신청을 받아 1,700명 정도의 유치원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금강미래체험관의 비대면 수업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을 이용해 금강미래체험관과 신청유치원이 온라인으로 연결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금강미래체험관의 기후위기 5대 주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이다.

수업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10분짜리 영상을 시청한 후 감사와 함께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폐CD를 활용해 북극곰 시계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을 각색, 짧은 인형극을 제작했으며, 이 인형극은 금강미래체험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시청할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실무수습 직원 명함 제작 배부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수습 임용된 실무수습 직원에게 사무용 명함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7월과 8월 실무수습으로 임용된 76명이며 시 본청·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실무수습 직원 명함제작을 통해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업무로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했다”며, “신규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업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기자

### 원광대 의사소통센터 ‘홀림-Day 글 공모전’

원광대학교는 의사소통센터가 2학기 개강을 맞아 원광(WAC) 프로그램 일환으로 ‘홀림-Day 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이 공모전은 대학혁신사업단 지원으로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여행수기, 일기, 편지 등의 분야에서 전개된다. 공모전 주제는 없으며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 조건은 ‘상대방을 홀림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 독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창의성(독창적 아이디어로 표현했는가)과 완성도(주제 의식이 분명하고 표현 능력이 탁월한가) 등 심사기준을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황보경 의사소통센터장은 “타인의 필체를 따라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글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글을 망설이지 않고 쓰고 나가는 것이 공모전에 당선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 제3회 추경예산 · 17안건 심의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0회 임시회를 7일간 개최하고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경예산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부 2차 추경 대응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김종신·우종삼·김경진 의원의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13건, 수정 2건, 보

류 1건, 부결 1건을 심의했다.

또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5억 7900만 원 가운데 불요불급 예산으로 판단된 6억 166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49억 624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정위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반영사업 대응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조기상황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7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배영원·설경민·서동원·김종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1차 60% · 2차 완료 38.23% 높은 접종률

군산시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인구가 지난 7일 8시 기준 16만5,4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26만7,859명의 인구 중 61.75%인 16만5,407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1분기 접종 대상인 6,532명 중 약 97%인 6,397명, 2분기 접종 대상인 9

만6,967명 중 약 92%인 8만9,62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또 3분기 대상인 30세 미만 필수인력 21,446명 중 90%인 19,807명,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 9,786명의 78%인 7,664명, 50세 3만2,521명의 93%인 3만448명, 18~49세 4만1,760의 15%인 7,567명 등이 접종을 완료해 61.75%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3분기 대상 중 18~49세는 추석 전, 후로 접종이 집중되며 더욱 접종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2,393명(38.23%)이 이미 2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문화행사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한 달동안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어깨펴기, 가슴펴기, 책도려기, 슬로건으로 북토크 및 그림책작가의 만남, 원화 아트프린팅 전시회, 테마별 큐레이션 등

군산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책 읽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독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에는 7년의 밤, ‘28’, ‘완전한 행복’의 저자로 대한민국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정유정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행복의 조

건-우리 곁의 나르시스트’를 운영한다. 또 오는 18일과 25일에는 박연철, 흥민정 그림책 작가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만나 다양한 그림책 속 이야기 세상을 여행하는 ‘그림책 작가들 만나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익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둘러싸고 불협화음

익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겪으며 내용에 휩싸였다.

7일 익산시는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중 발생한 의원간 마찰로 인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조남석 의원은 반대 토론을 갖고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조 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해야 함에도 의원의 소견과 소신을 짓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또 예결위 문제를 둘러싸고 의정생

활을 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A의원에 대해서는 4억원의 의회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타지역 제품을 수의계약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원 문제로 적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책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법적 책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의회 방송시스템 선정 문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예결위원 선임 과정도 전화 통화로 조남석 의원에겐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했음에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